

사회

왕복 9차선 도로서 3분에 1명 꼴 무단횡단

■ 이래서 광주 교통사고 전국 1위 '오명'

신호위반·불법유턴 다반사... 경찰서 앞에서도 위법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 오명(광주일보 6월 3일 6면)을 안고 있는 광주의 교통질서 위반은 심각했다. 취재진이 주요 도로에 나가 직접 살펴보니 무단횡단이 횡행하고, 신호위반과 불법유턴도 다반사였다. 심지어 경찰서와 파출소 바로 앞에서도 교통법규 위반이 거리낌없이 이어졌다.

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모 은행 앞 도로. 한 아주머니가 집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왕복 9차

선인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내리막길인데다 차들이 과속으로 운행하고 있었지만 이 아주머니는 차들 사이로 손수레를 끌며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건넜고, 중앙선을 따라 1분여 이동한 뒤 남은 도로를 횡단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30분 동안 산수육교 아래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람들로 모두 9명. 육교 양 옆으로 280m·14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인근 시장을 가기 위

해 무단횡단을 일삼았다. 또 이시작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3대의 승용차도 발견됐으며, 불법유턴 차량도 19대나 됐다.

같은날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 앞 교차로. 정오부터 10분 동안 7명의 보행자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2순환도로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인데다 내리막길이라 차량 속도는 매우 빨랐다.

남부경찰서 쪽에서 내려오는 1차선 도로는 좌회전과 우회전하려는 차량들로 뒤엉켜 중앙선을 넘기 일쑤였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과 중앙선을 넘는 차량들이 뒤엉켜 사고 위험이 매우 커 보였다.

이처럼 시장과 인근 상가에 가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도 광주시와 경찰은 '시민의식 부재' 탓으로만 돌린 채 아무런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산수육거리의 경우 지난 4월 19일 밤 10시께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밤 늦은 시각 왕복 9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인근 주민 김모(여·62)씨가 달리던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지역엔 무단횡단규제에 아무런 필요 없는 차로규제봉만 2m 간격으로 48개가 설치돼 있을 뿐, 무단횡단 방지 분리대와 같은 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위험 때문

에 무단횡단방지 분리대 설치 요청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상 모든 차로에 무단횡단 방지 분리대를 설치할 수 없어 경찰청의 판단 하에 도로 상황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며 "분리대를 설치하더라도 시민들이 또다시 파손해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광주지역 전체 3만 299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구 10만명당 2275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9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산수육교 아래 왕복 9차선 도로를 한 시민이 무단횡단하고 있다. 이 도로에선 3분에 1명꼴로 무단횡단이 일어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단속카메라 한대 없는
기아차 사거리 45건

광주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사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009년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45건(사망 1명·부상 93명)을 기록한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사거리였다.

이어 ▲서구 유덕동 계수 사거리 42건(사망 1명·부상 72명) ▲서구 농성동 농성공원 사거리 31건(부상 61명) ▲서구 유촌동 버들중공과파트 사거리 30건(52명)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29건(사망 1명·부상 45명)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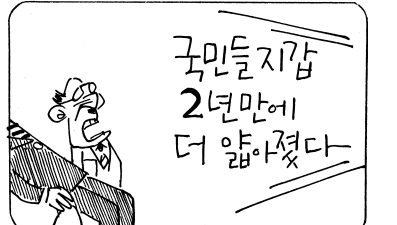
사고다발 1위를 기록한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는 평균 8.1일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왕복 10차선의 이 구간은 하루 평균 5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한다.

제한속도는 70km이지만, 넓은 차선과 길게 뻗은 직선도로에 진입한 차량들은 시속 100km 이상을 넘나든다. 하지만, 이 구간에는 신호위반·과속 무인단속카메라가 단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

이 구간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자주 통행하는 도로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출퇴근 시간 교통 경찰관 상시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333) 김종두



선착장 택시 추락 운전사 숨져

9일 오전 9시 40분께 목포시 북항 여객선 선착장 앞바다로 목포 모 법인 택시가 추락해 운전사 A(여·45)씨가 숨졌다.

인근에서 작업하던 항운노조원 등 목격자들은 "사고 택시가 여객선이 이용하는 선착장 부두로 굉음을 내며 돌진해 바다에 빠졌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친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 2명 영장 신청

광주 북부경찰은 9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박모(19)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5시께 광주 북구 녹이터에서 김모(19)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군이 자신들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 육살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남 어플' 통해 술 마신뒤 카드 '슬쩍'

○"일명 '남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카드를 훔쳐 사용하려던 20대 남성들이 경찰서행.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신모(25)씨 등 2명은 지난 8일 새벽 2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주모(여·26)씨의 손가방을 뒤져 체크카드 3장을 훔친 뒤 술값 14만 원을 결제하려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스마트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주씨 등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신씨 등은 주씨 등이 술에 취한 틈을 노려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을 결제하려했으나 주씨의 휴대전화로 결제시도 내역이 전송되는 바람에 달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보해저축銀, 브로커 3명에 929억 불법대출

檢, 정·관계 로비자금 연관 수사 확대

보해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로운 브로커 강모(54)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보해와 삼화 저축은행과 연관된 브로커는 삼화저축은행 실재 주인으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도주한 이철수(52)씨와 함양군수에게 로비를 한 박모(62·구속 기소)씨 등 3명으로 늘었다.

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4월

22일 목포시 명륜동 보해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대출 명의자를 다른 사람이름으로 바꾼 뒤 세 차례에 걸쳐 68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2007년부터 지난해 7월 16일까지 강씨를 포함한 이씨와 박씨 등 브로커 3명에게 929억8400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오 대표가 강씨 등 브로커 3

명에게 1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대출 해준 것이 정·관계 등의 로비에 대한 청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씨와 박씨는 각각 보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은 받은 뒤 사채 등을 끌어오는 등 오 대표와 짜고 비리를 저질러 왔으며, 박씨는 불법대출금으로 리조트 건설사업 편의 제공 청탁 대가로 전·현직 함양군수에게 6000만원·20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해남 섬 김공장서 장애인 노동착취”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남 삼마도에 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섬의 김 양식업자 3명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 A(49)씨 등 4명을 고용해 2개월~9년 10개월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판결 불만 50대 여성 흥기 난동

9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 광주교법 전주재판부 7호 법정에서 민사고급 항소심 선고를 들은 윤모(여·52)씨가 판결 직후 갑자기 흥기를 깨 난동을 부렸다.

전북의 모 사찰 보살인 윤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터널 발파공사 진동 때문에 사찰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1, 2심 재판부가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 인정해주지 않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남원시장·순창군수 직위 상실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와 윤승호 남원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9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

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지역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지난해 5월 18일 지역 방

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목 임실군수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정엽 완주군수와 김성기 정읍시장, 이한수 익산시장은 1~2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80만원,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사실상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 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미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7월 1일